

도이치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11월 21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1월 22일 오후 8시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카렐 마크 시송이 이끄는 도이치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 2007년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과 카이저슬라우테른 방송교향악단이 합병해 탄생한 도이치 라디오 필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부터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프 포펜이 초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2011/2012 시즌부터는 카렐 마크 시송이 상임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다. 1971년 영국에서 태어난 시송은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수학했으며 시노폴리와 게르기에프의 부지휘자로 활동했다. 그는 현재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와 예술감독직을 겸하고 있다. 내한 공연에서는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이 연주된다. 협연자로는 뮌헨 출신의 비비아네 하그너가 나선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열두 살의 나이에 함부르크 필과의 협연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한 이래 유럽 전역을 오가며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02년 첫 무대를 가진 이후로 여러 차례 내한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서울시향과 함께 진은숙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 바 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유중 라이징스타 콘서트

10월 25일~12월 27일 오후 7시 30분

유중아트홀

제1회 유중 라이징스타 오디션 합격자들이 콘서트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7월, 만 30세 이하 젊은 음악인을 대상으로 개최됐던 오디션에서 최종 합격된 다섯 명의 솔리스트와 체임버 부문 2팀이 이번 무대의 주인공들이다. 10월 25일 플루티스트 권영인·김기연의 듀오 연주회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송혜림 바이올린 독주회(25일), 김지윤 바이올린 독주회(29일)가 이어진다.

12월 중에는 7일 첼리스트 홍승아가 연주회를 가지며, 13일 박경화(바이올린)·주숙현(피아노)의 무대에 이어 20일 비올리스트 신혜리의 독주회가 열린다. 이후 27일 더블베이스 추대희의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2012년 유중 라이징스타 콘서트의 모든 막이 내린다. 이번 콘서트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희망하는 관객은 유중아트홀(02-536-1108)에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대전시립합창단 헨델 '메시아'

12월 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전시립합창단이 헨델 '메시아'를 서울에서의 특별연주회로 무대에 올린다. 이미 바흐 'B단조 미사' '요한 수난곡'과 몬테베르디 '성모마리아의 저녁기도' 등을 선보였던 이들은 지난 2010년 헨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을 소니 클래식에서 내놓은 바 있다. 전체적으로 맑고 온화한 분위기의 '예언과 탄생', 복음의 선포와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수난과 속죄'에 이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서 신앙고백과 찬미로 끝을 맺는 헨델의 '메시아'는 종교음악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온다. 이번 무대에는 지난 2007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빈프리트 톨이 지휘자로 나선다.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 합창지휘과 교수인 빈프리트 톨은 헬무트 릴링의 뒤를 이어 프랑크푸르트 칸토라이 지휘를 맡은 바 있다.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연주를 맡았으며, 소프라노 석현수·알토 김선정·테너 박승희·베이스 정록기가 함께 무대에 선다.

